

Eugene Daily Snapshot

마의 7천선에 걸터앉은 코스피

유진투자증권
2026.09.23

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368-6136_lee.jy@eugenefn.com

주식 (26.9.22)

(단위: pt, %)

		증가	1D	1W	1M	YTD
한국	KOSPI	7,017.91	0.1	5.9	1.5	66.5
	KOSDAQ	834.38	-0.2	2.7	4.0	-9.8
미국	S&P500	7,764.64	0.0	2.4	1.2	13.4
	NASDAQ	27,244.28	0.5	4.9	4.1	17.2
	필라델피아 반도체	12,689.82	2.1	13.5	8.1	79.2
유럽	EUROSTOXX50	6,324.72	0.1	1.4	-2.1	9.2
	독일 DAX40	25,578.85	0.0	0.7	-2.1	4.4
아시아	일본 NIKKEI225	65,018.95	1.4	1.6	-3.6	29.2
	대만가권	47,800.17	0.2	5.0	5.7	5.7

채권

(단위: %,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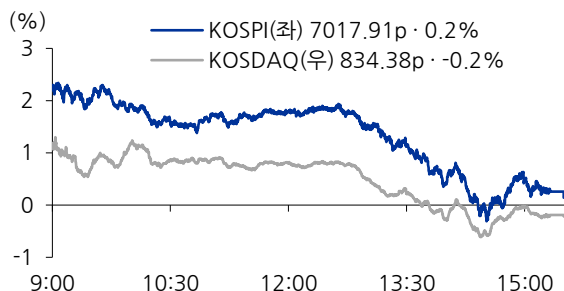
		증가	1D	1W	1M	YTD
한국	국고채 3년물	4.04	-1.6	-5.1	18.6	108.7
	국고채 10년물	4.46	0.4	-13.9	8.5	107.6
미국	미국채 2년물	4.74	-0.1	8.0	51.1	126.8
	미국채 10년물	4.97	1.3	-3.6	23.3	79.7
	미국채 30년물	5.30	1.7	-6.6	2.8	45.7
	NVDA CDS 5년물	82.88	2.3	5.3	-2.5	41.1
	ORCL CDS 5년물	214.69	6.8	20.3	-5.6	71.1

환율 및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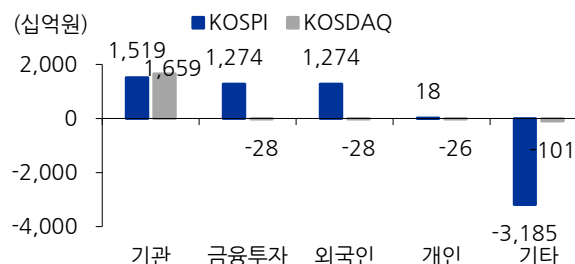
(단위: %)

		증가	1D	1W	1M	YTD
환율	원/달러(원)	1,358.20	-1.7	-0.1	-2.0	-5.6
	달러지수(pt)	100.50	0.2	0.9	1.7	2.3
원자재	WTI 연결물(\$)	94.59	-1.2	-10.6	8.6	64.7
	금 연결물(\$)	4,376.40	-0.2	1.0	-6.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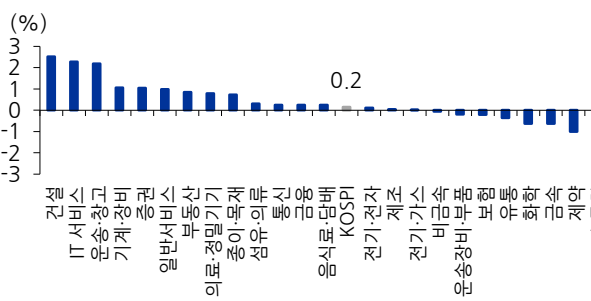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26.9.22)



투자자별 수급 동향



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 (26.9.22)



간밤 해외 증시

유가 100 달러 하회 & 반도체 강세, 나스닥 사상 최고

-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 유가 100달러 하회 & 금리 상승 진전에 기술주 중심 위험선호 회복, 반면 은행주 약세가 다우·S&P500에 부담. 다우 -0.4%·S&P500 -0.0%·나스닥 +0.5%·필 반도체 +2.1%.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 필 반도체는 6거래일 연속 상승.
- 마이란 대표단, 유엔총회 계기 3시간 회동.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시 1주일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 입장. 사우디 동서 송유관 가동 재개로 공급 차질 우려도 일부 해소. 국제유가 하락, 브렌트 11월물 99.25\$(9/8일 이후 처음으로 100\$ 하회, -1.1%)·WTI 10월물 94.59\$(-1.2%). 미 10년물 금리는 4.97%(+1.3bp)로 5% 아래에서 등락.
- 반도체주 동반 강세, SNDK(+6.8%)·MU(+5.0%)·AMD(+1.3%)·NVDA(+0.7%). 전 날 AI 에이전트 'Muse' 공개로 11% 급등했던 META(-0.6%)는 차익실현. Muse 연동 자동결제 도입을 발표한 SHOP은 +7.1% 급등. 은행주는 JPM(-3.4%)·WFC(-3.9%)·BAC(-3.0%) 약세.

전일 국내 증시

WTI 고점과 겹친 코스피 오후 저점 & 아시아 리스크오프

- 국내 양대 증시, 선강후약으로 보합권 마감. 코스피는 장중 고점 +2.3% → 종가 +0.15%, 코스닥 +1.3% → -0.2%. 유엔총회를 앞둔 美·이란 간 신경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단행에 유가가 2% 가까이 오르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美·이란 협상 개시는 긍정적이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임. 美 밴스 부통령은 뉴스맥스 인터뷰(KST 22일 오전 11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향후 수년간 이란 핵 프로그램 재건 차단이라고 언급. 이란은 외무부 대변인이 X를 통해 유가연료 위기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KST 오후 1시경),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도착 직후 국제기구의 평화 수호 실패와 서방의 침묵을 비판.
- 코스피 저점은 정규장 마감 1시간 전으로 WTI 상승 시점과 겹침. 대만 항쟁-상해도 오후 저점 형성하며 방향을 같이함. 유가 강세와 아시아 전반의 오후 리스크오프 동행.
- 코스피는 장중 120일선을 상회했으나 반락. 120일선 부근에서 돌파 시도와 되돌림이 반복되며 저항 확인.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으나 이상향 중인 5일선 위 흐름 유지.

주: 한국시간 오전 7시 · KRX 정규장 기준 자료 출처: 코스콤,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ugene Daily Snapshot



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

반도체 대형주 상승폭 반납, 기관·항공·원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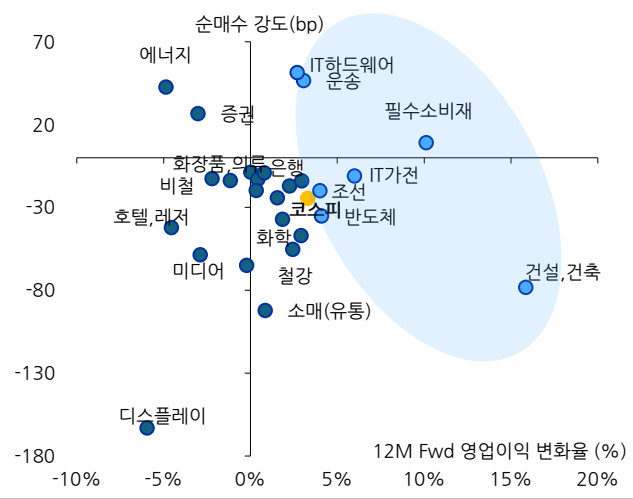
- META 개인 AI 에이전트 앱 '뮤즈(Muse)' 흥행에 에이전트 AI 확산 → CPU 수요 증가 기대 부각. **반도체 소부장·IT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강세. 항공은 환율유가 동반 하락에, 건설·유틸리티·에너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국회 보고에 상승.**
- **(반도체·IT하드웨어)** 장중 삼성전자 +3.5%·SK하이닉스 +3.6%까지 오르며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지정학 우려로 유가 오르면서 상승폭 반납(삼성전자 +0.9%·SK하이닉스 -1.5%). 반면 **기관**은 강세 유지. 코리아씨티(+25.4%)·심텍(+13.3%)·LG이노텍(+4.4%). **소부장**도 파두(+10.4%)·ISC(+4.5%) 등 견조.
- **(소프트웨어)** 뮤즈 효과에 카카오편(+2.9%)·NAVER(+1.6%) 동반 상승.
- **(항공)** 유가 하락 & 원화 강세에 대한항공(+8.8%)·아시아나항공(+8.7%) 급등. WTI는 전일(9/21) -4.5%로 9거래일 만 최저, 달러원은 당일(22일) -1.7%(-23일) 하락.
- **(정책 수혜 및 기타)** 산업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2호,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을 3호 프로젝트로 보고, **美**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도 논의 중. 현대건설(+4.5%)·한전기술(+6.6%)·비에이치아이(+4.6%) 상승. **LG전자(+6.9%)**는 AIDC용 2.5MW급 냉각장치(CDU)의 엔비디아 품질 인증 획득에 급등.

오늘의 클로즈업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곳에 수급이 따라갔다

- **코스피 외국인**은 5월 이후 5개월 연속 순매도 중임. 9월에는 22일까지 -12.8조원을 순매도해, 3주 만에 7~8월 월간 규모(각 -10조원 내외)를 넘어섰음. 반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전월 대비 +3.3% 상향됨.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업종에 외국인 수급이 따라갔는지 점검함.
- W126 업종을 대상으로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변화율과 외국인 순매수 강도(20거래일 누적 순매수/시가총액)**를 비교함. 이익과 수급이 함께 개선된 업종은 필수소비재, IT하드웨어, 운송. 반면 15개 업종은 추정치가 올랐는데도 외국인이 순매도함. 건설은 상향 폭(+15.9%)이 26개 업종 중 가장 컸으나 순매수 강도는 하위권이었음. 반도체도 +4.1% 상향됐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도의 77%가 몰렸음. 반대로 에너지, 증권은 이익 하향에도 자금이 유입됨.
- **외국인 매도세 속에서도 이익 개선이 확인된 업종이 대안임.** 이익과 수급이 동행한 필수소비재, IT하드웨어, 운송과 함께, 이익 대비 수급이 소외된 건설, 반도체, IT가전, 조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업종별 영업이익의 변화 vs 외인 순매수 강도(최근 20 거래일)



종시 자금 동향

		(단위: 조원)			
		9/21 일	1D	1W	1M
고객예탁금		98.1	-0.20	-8.68	-2.61
신용잔고	거래소	25.5	0.12	0.44	0.36
	코스닥	7.2	0.02	0.01	0.30
수익증권	주식형(전체)	344.4	3.66	149.03	142.88
	채권형(전체)	214.9	0.93	13.50	12.33
MMF		252.6	-3.60	1.97	-7.05

KOSPI 52 주 신고가 · 신저가

52 주 신고가 (5 종목)		52 주 신저가 (25 종목)	
대한항공	▲8.8	아센디오	▼11.9
S-Oil	▲4.5	주연테크	▼11.8
KPX 케미칼	▲0.9	SHD	▼9.6
한국주강	▲0.8	인바이오젠	▼4.9
유니퀘스트	▲2.9	하이브	▼3.8
		진흥기업 2 우 B	▼3.6
		태림포장	▼3.3
		대구백화점	▼3.2
		KR 모터스	▼3.2
		한진	▼2.8

KOSPI 기관/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증가(원)	등락률	대금(억원)
1	삼성전기	1,486,000	▲4.0	3,221
2	삼성전자	276,500	▲0.9	2,628
3	LG 전자	216,500	▲6.9	1,317
4	대한항공	31,400	▲8.8	1,106
5	심텍	148,100	▲13.3	376
6	대덕전자	112,300	▲10.2	342
7	NAVER	201,000	▲1.6	292
8	LG 이노텍	542,000	▲4.4	259
9	효성중공업	2,901,000	▼0.6	212
10	티엘비	44,500	▲16.8	201